



한국LPG가스공업협회 유수륜 회장

“LPG산업 분명 희망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DME연료 혼합 시범사업 진행해 경제성 확인
LPG경차로 운전자 연료비 절감, 국가는 에너지절감**

한국가스신문

“프로판 수요가 정체 상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프로판 산업이 결코 사양 산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LPG가스공업협회 유수륜 회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판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사업자들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로 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판 연료에는 특소세, 관세, 부가세 등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각종 명목으로 부과되고 있는 세금이 폐지 또는 축소되고 시설자금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정부의 지원정책이 이뤄진다면 프로판 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부의 도움을 바라기 전에 업계에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유 회장은 배송센터 시범사업, 벌크공급을 통한 신규수요확대, 용기 RFID부착 등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LPG와 DME 혼합연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올해 8월부터 시범사업도 진행해 그 경제성을 따져볼 방침이라고 한다.

“가격자유화 이후 LPG소비자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도 사실이며 불합리한 유통구조로 인해 경쟁연료대비 유통비용이 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벌크공급, DME연료 혼합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프로판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도한 것들이 성과를 거둬 원가인하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마진폭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가격인하로 이어져야 한다고 사업자들의 윤리의식을 강조했다.



한국LPG가스공업협회 회장 유수륜

“배송센터 시범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충전·판매사업자 간 합의를 바탕으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의 배송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직 배송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이 나오지 않아 어려움이 있지만 최종 평가물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송센터 시범사업이 현재 충전·판매사업자 간 의견 일치를 보지못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하는 그는 양 업계가 만남을 갖고 협의를 통해 배송센터가 올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충전업계는 용기 재검비가 날로 치솟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노후된 용기가 늘어나고 현재 프로판 사용량이 과거에 비해 현격히 줄었으나 유통되는 용기숫자는 엇비슷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20년 이상된 용기는 충전소에서 스스로 폐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도 잊지 않았다.

“LPG자동차 사용계층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차부문에서 LPG자동차를 허용해 줄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국민들이 세금혜택 뿐만 아니라 연료비의 이점도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는 셈이죠”

최근 대기오염이 적은 자동차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LPI신기술로 연비도 많이 좋아진 LPG자동차의 확대보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2008년부터 1000cc급 이하로 경차가 확대되는데 LPG경차가 나올 경우 보급이 확대돼 국가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대형자동차는 CNG로 소형자동차는 LPG를 사용해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대기오염문제로 가스자동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으나 기존 대형차 위주의 LNG자동차가 최근에는 승용차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NG자동차의 소형차진출에 대해 서로 영역을 인정해 주고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유 회장은 큰 틀에서 합의된 사항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CNG자동차의 확대가 지속될 경우 LPG충전소와 CNG충전소의 경업 등으로 대처해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올해에는 LPG신차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져 참으로 다행입니다. 스타렉스 후속모델이 5월경에 경유모델과 함께 LPG용도 출시되고 연말에는 산타페 후속모델도 나온다고 하니 LPG신차에 대한 갈증이 어느정도 해소 되겠죠”

국내의 LPG자동차 기술력이 세계 1위 수준인데 향후 수출길도 열려 LPG자동차의 활성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도 비쳤다.

마지막으로 LPG를 사용하는 계층이 상대적으로 서민층인 것을 감안해 LPG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그는 사업자들이 소비자와 권익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정부에게도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프로판 수요가 정체 상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프로판 산업이 결코 사양 산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